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적극적 태도 제목 : 맡겨진 소유 성경: 마태복음 25장 14-30절

14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며

18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20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22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7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25:14-30)

흔히 달란트 비유로 알려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 몇가지를 배울 수 있다.

1.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경제적 원칙이다.

오늘 말씀에 사용된 비유는 경제적인 이야기가 주제이다. 한 달란트는 당시에 큰 자금이었다.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를 하였다. 주인은 돌아와서 결산을 하였다. 결산을 통해서 종들에게 성과급을 나누어주었다. 결산에는 역시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관심사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심하게 책망을 받게 되는데, 책망의 초점도 이자라도 남겼어야 하지 않았느냐에 있었다. 만약 그가 이자라도 남겼더라면 형벌은 면했을지 모르겠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각자가 자기의 직업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익이나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업적에 따라 그 업무에 대한 경영권을 받게 된다.)

물론 그 돈의 주인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즉, 주인을 더 부자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은 그 이윤을 모두 다시 종에게 맡긴다. (누가복음 19장 11-27; 열 므나의 비유, 열명의 종에게 한므

나씩 열므나를 맡김. 한므나로 열 개를 남긴 종, 다섯 개를 남긴 종, 하나를 남긴 종이 등장함. 열고를 다스릴 권세를 줌. 주인의 왕됨을 싫어하는 자들은 처단됨)

2. 재능의 관점에서 해석.

-사람마다 재능의 크기가 다르다. 감당해야 할 역할과 미션과 환경, 처한 처지가 다르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레벨을 바꾸는데 모든 것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바꾸는데 투자할 것인가?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두달란트의 성과를 기대하심. 그러나 동일한 칭찬.

한 달란트 받은자는 다섯달란트 받은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자다.

그는 한달란트를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였다.

놀라운 것은 다섯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하신 평가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이다. 그는 한달란트나 두 달란트 받았던 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지만, 주님은 그를 '적은 일에도 충실한 자'로 평가하셨다. 사실 그의 스펙은 다섯달란트가 아니라 오십달란트였던 것이다.

현실이 그렇다.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아주 초라하게 시작하는 자들도 있다.

초라하게 시작하는 자들이 시험에 들 필요는 없다. 어차피 크게 성공할수도 없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 사정을 알고 그에게 엄청난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문제는 초라하게 시작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기대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욕심이 과하고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을 과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다. 그러다가 실패할 경우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진 자를 미워하고

비난한다. 비평하는 자들이 똑똑한척 하기도 하고, 더러는 똑똑하다고 여길지 모르나, 그들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무시하는 자들일 뿐이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자들이 사실은 기득권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당신이 만약 기득권자라면 초라한 자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것인가? 나는 그동안 기득권을 충분히 누려 왔으니, 이제 이 자리를 당신에게 양보하여 당신도 기득권을 누려 보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양보할 것인가?

다만 동정도 하고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득권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런 갑을관계를 하나님이 운명지위 놓으셨나? 아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었치락 뒤치락 바뀌어가고 있을 뿐이다.

왜 나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지 않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운명도 아니고, 미움이나 차별도 아니다.

3. 윤리적 관점에서.

오늘 비유에서 보면 종들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윤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부당한 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은 이런 부당함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게으를 뿐만 아니라, 게으름에 대한 변명으로 주인의 단점을 들추어낸다.

그러나 주인의 윤리적 가치관은 초지일관 선함과 충성스러움이다.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 분노하고, 선하고 충성스러운 자는 칭찬한다. 달란트의 많고 적음, 재능이 많고 적음, 성과의 많고 적음, 똑똑한지, 정의로운지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선함과 충성스러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왜냐면 선함은 정의로움을 포함하지만, 정의로움은 선함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신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정의로우려는 자들에게는 무관심하시고, 선하려는 자들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다. 흔히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실수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먼저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불법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의로우려는 자들을 방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의의 가치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우선 순위에 있어서 선함에 밀려나야 한다. 특히 일터 현장에서 더욱 그렇다.

4.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비유는 풀이되어야 한다.

본문의 주인이 타국에 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셨다는 뜻. 결산하신다는 말씀은 종말에 재림하시어 심판하신다는 뜻이다.

종들을 제자들을 말한다. 이 제자들은 성직자들을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이다.

첫 번째 심판은 휴거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세상을 다스릴 사람을 뽑아서 휴거 시키신다.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공중에서 임관예식을 거행하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에서 천년동안 왕노릇, 즉 다스리는 주체가 된다.

누가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예수님 입장에서 무능한 자보다 유능한 자를 원하실 것이다. 수많은 유능한 자들 중에서 고르신다면, 선하고 충성된 자를 고르실 것이 분명하다. 비록 무능해도 선하고 충성된 자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힐 것인가? 상황이 좋을때는 선하고 충성스럽지만, 뭔가 사정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경우에도 선하고 충성스러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휴거될 것인가? 상사의 비리를 비판하면서 나는

더 이상 저런 상사를 모시고 회사에 다닐 수 없다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회사가 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인가?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휴거되며, 누가 나중에 그 회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인가? (오늘날 잘못된 종말론은 세상에서 떠나도록 유도한다. 단순히 휴거에서 제외되도록. 속지말자.)

오늘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의 많고 적음이나 질적인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닥치게 될 천년왕국에서의 나의 위치이다. 그리고 모두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물론 쉽지도 않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도전할 수 있고,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